

긴급점검 태풍에 낙과피해 속출...추석 과일수급 이상없나

배 주산지 피해 컸지만 작황좋아 물량 충분

<전남지역>

추석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태풍이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 수급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월2~3일 찾아온 '나크리'로 전남지역 일대에선 배·복숭아 등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에서도 사과가 피해를 입었다. 또 9일을 전후해 태풍 '할롱'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풍이 추석 대목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배, 전남지역 낙과 피해 입어=태풍 나크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배다.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현재 전남지역의 배 낙과 피해면적은 일부 복숭아 등을 포함한 모두 434.7ha에 이른다. 낙과율은 농가별로 차이가 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0%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전남지역 전체로 보면 올해 배 작황이 좋아, 추석 출하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사과·복숭아 일부지역서만 피해...정상 출하 가능 산지, 추가 태풍소식에 선택 등 품질 악영향 우려

아 수량이 많고 생육 상태도 양호해 추석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기 안성·평택, 충남 천안 등 중부권 배 주산지들은 태풍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훈기 충남 천안배원에농협 상무는 "우리 지역에선 비가 오다 말았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배 수확량은 평년 수준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선 서울 가락시장 (주)중앙청과 전무는 "전국적으로 보면 태풍 피해는 전남지역 일부에서 발생했을 뿐, 중부권이나 영남권에서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며 "추석 대목장에는 정상적인 배 출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과, 일부지역서 낙과 확인=<홍이순균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는 "태풍 나크리로 낙과가 발생했지만 과거 다른 태풍에 비하면 피해가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올해는 배 작황이 비교적 좋

한 바람에 의해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전체 과원의 10~15%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피해를 입은 과수원의 모든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알이라도 떨어지거나 과피에 흠집이 생긴 것을 피해라고 간주했을 때의 피해 규모"라면서 "태풍 나크리로 추석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철 전북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바람이 서로 겹쳐 부는 불리한 지형에 있는 과수원을 둔 네댓농가에서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태풍만 없다면 조생종 사과 출하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남북지역은 피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종덕 경남 밀양농협 산내지점 과장은 "비와 바람이 조금 불렸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아주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문철 경남농협지역본부

시장개혁팀 단장은 "거창지역에서도 조생종 사과가 일부 재배되고 있지만 나크리에 따른 피해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진동일 대구경북농업농협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장은 "영주 등 경북 일대에선 기름이 심했던 터라 태풍으로 내린 비가 생육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피해를 운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복숭아 등은 피해 미미=복숭아는 전남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방원혁 광주원에농협 조합장은 "화순지역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는데 낙과율은 50~60%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조생종은 수확을 끝낸 상태여서 중간생종 농가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호철 경남 진주원에농협 조합장은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5~6농가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복숭아 역시 추석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북 음성 갑곡농협과 경기동부과수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물량이 많은 중부지역엔 배가 시제 불지 않아 복숭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3일 경남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복숭아농장에서 태풍 '나크리'가 몰고온 강한 바람에 떨어진 복숭아를 농업인이 비를 맞으며 줍고 있다.

한편 과일 주산지 관계자들은 태풍 '나크리'의 피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음에 안도하면서도, 할롱 등 추가 태풍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종덕 밀양농협 산내지점 과장은 "태풍 나크리 후속으로 할롱이라는 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에 경색의 끈을 놓지 않고 예상 진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별 피해 없이 지나가

기만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연이은 태풍 소식에 비바람보다는 일조량 부족이 더 큰 고민거리"라며 "조생종 사과 주산지인 전북지역에서는 이제 막 색깔이 도는데 며칠 동안 햇빛이 들지 않아 색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김소영, 이성제 기자



"올 추석선물도 우리 농특산물로" (주)농협유통(대표이사 김정홍)은 4일 하나로클럽 서울 양재점에서 우리 농특산물로 만든 한가위 농특산물 선물세트 300여종을 선보였다. 농협유통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한가위를 맞아 팔도 특산물 선물세트 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2만~30여만원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김주홍 기자 photokim@nongmin.com

“농협판매장 전기료 절감, 새 ‘지능형 수요관리제도’ 활용을”

정부, 12월부터 도입기로 현금 지급분 기존보다 늘어 10월까지 등록마쳐야 혜택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농협 판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뀐 제도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상당부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 통과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새로운 '지능형 수요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새 제도는 전력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해당 시설을 수요 자원으로 등록한 뒤 해당 시설이 사전

에 산정한 전력 감축 가능용량 혹은 그 이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는데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감축분만큼 상응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한달 혹은 분기마다 되돌려 받는 제도다. 전기료를 아껴 국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줬으니 노력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전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데다 지난해 원전사고가 발생,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사회적 불편이 가중되면서 전력 수급관리 정책을 수요량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했다. 새 지능형 수요관리제도는 이런 변화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새 지능형 수요 관리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 경기 고령 정부로부터 감축분만큼 상응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한달 혹은 분기마다 되돌려 받는 제도를 수요 자원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사전 산정한 감축용량만큼 전기 사용량을 줄였고 그 결과 모두 1518만여원을 7월31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올 11월까지의 기존의 지능형 수요관리제도가 시행되는데 감축에 따른 현금 지급은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보전된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새 제도가 도입에 따라 현금 지급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돼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형시설 소유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형중 농협중앙회 마트전략부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농협 하나로클럽 서울 양재·창동점 등 전국 14개 농협 판매장으로 참여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전력 수요관리사업자로 등록된 (주)나지온의 이대연 대표는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전기요금도 감면받고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면서 "비상발전기 등 관련 전기시설이 잘 갖춰진 농협 판매장들도 전기 수급관리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제도 참여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올 10월까지 관련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소영 기자 spur22@nongmin.com

Main table titled '주요 농산물 가격' (Major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양곡·특용작물값' (Grain and Specialty Crop Prices). It lists various products with prices for different dates (9월 1일,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It also includes a '꽃 경락값' (Flower Market Prices) section with product names and prices.